

광주·전남 예비창업자 ‘점포체험’ 큰 호응

지방중기청,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통해 성공률 제고
상무지구 15개 매장 운영...아이디어 사업화 등 지원

지역내 창업지원을 위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의 ‘점포체험’이 예비창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을 급증(3년내 60%)에 따른 (예비)창업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론교육과 점포체험실습 등 총 5개월에 걸쳐 운영하는 창업

전문 교육과정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컨설턴트와 노무사, 성공한 선배 창업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론교육을 한 달 간 실시하고, 이후 16주간의 점포체험을 통해 실제로 점포를 경영하면서 매장 진열부터 판매전략, 고객관리 등의 경영노하우를 체득하고 있다.

체험점포는 광주 상무지구에 예비창업자의 꿈을 이룬다는 의미인 ‘꿈이룸’이라는 이름으로 2개의 매장에 인테리어 컨설팅, 핸드메이드 캔들, 열대과일 음료 등 15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최근 ‘점포체험’ 교육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생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점포체험을 실시중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장이기도 한 김진형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점포체험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생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며 지역 경제의 미

래가 될 미래 소상공인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체험점포 중 교육생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통차 전문매장에서 진행됐다.

집이 제주도인 강효숙(45·여)씨는 “창업교육을 위해 잠시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창업전에 체험점포를 통해 매장을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플랜테리어(식물+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박현준(29·담양)씨는 “고객 및 재무관리 등 사관학교를 통해

서 정말 얻은 게 많다”며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소도시나 지역에서도 운영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체험점포의 실습기회를 잘 활용해 졸업 후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아이디어사업화(2천만원) 및 창업자금(1억원) 등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송지 기자 ohssji@kjdaily.com



삼성, 중국서 ‘인터밀란 TV’ 출시

삼성전자가 중국 최대 전자 유통업체이자 이탈리아 프로축구 명문구단 ‘인터밀란’의 대주인 쑤닝(蘇寧)과 손잡고 ‘인터밀란 TV’를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중국 난징에 있는 쑤닝 화이하이점에서 ‘삼성 인터밀란 TV 런칭쇼’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밀란 TV’는 중국 축구팬들을 겨냥해 리모컨과 화면 베젤(테두리), 제품 패키지에 ‘인터밀란’ 로고를 적용했으며, 중국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PPTV를 통해 ‘인터밀란 경기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광주세무사회, 세무회계 실무자 양성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세무회계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8월 16일까지 이뤄진다.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 양성교육은 학생들이 회원사무소에서 필요한 실무를 습득하고 필요한 인력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록 회장은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과정을 이수한 전남여상 학생들이 회원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결에 앞장서고 문제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지역 R&D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교육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7일 전자 부품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및 대학 등 광주·전남지역 80여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R&D지원사업 사업비 정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R&D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규정 및 집행 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해 사업비 환수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미리 방지해 사업비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올해 관련지침 개정사항, 사업수행 중 수행기관이 유의해야 하는 협약변경, 사업비 전용 등 올바른 관리 방법과 투명한 사업비 집행방법 교육,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진다.

김진형 청장은 “매년 R&D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집행기준에 맞지 않아 불인정이 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지원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송지 기자 ohssji@kjdaily.com

중소 70% “중소벤처기업부 기대”

‘시장 공정성 확립’ 최우선 과제

신설되는 중소기업부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바란다.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7곳(68.0%)은 신설된 중소기업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대의 이유로는 ▲중소기업 관련법안 개정·발의 등 영향력 확대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48.5%) ▲중소기업 관련 예산 확대로 자금조달 용이(47.1%) 등을 꼽았다.

또 중소기업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분야로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응답한 비율이 44.0%로, 현재 중소기업들이 처한 불공정한 경제환경에 대한 개선을 매우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대 장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통능력’(36.0%), ‘중소기업 관련 전문성’(35.0%)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SNS활성화 등 소통창구 다양화’(35.0%), ‘정책 간담회’(31.0%) 등의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 부처와 현장의 소통에 대한 요구를 드러냈다.

중소기업 스스로는 ‘기술경쟁력 강화’(60.0%), ‘품질·브랜드 가치 제고’(9.5%)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부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으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술발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등을 추진하는 정부 조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송지 기자 ohssji@kjdaily.com



생명 구하는 희망 메시지 전하세요

광주신세계가 1층에서 개발도상국 등 지구촌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취지인 유니세프와 함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토리에 직접 손글씨로 응원메시지 붙이기, 유니세프 무인 포토존, 구호물품 전시 등 다양한 참여행사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시민 84%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반대”

대책위, 1천명 여론조사...“강행시 지역총파업 고려”

광주시민 84%는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의 광주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에 대해 지역민 84.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8.7%였다.

금호타이어 인수에 적절한 주체에 관한 질문에는 85.2%가 ‘국내기업’이라고 답했으며 ‘해외기업’을 선택한 비율은 6.2%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금호타이어 문제는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호남경제도 지켜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83.4%, ‘공감하지 않는다’는 11.8%였다.

금호타이어를 해외매각하면 기술만 유출하고 고용은 승계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2.0%였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불공정 입찰과 계약변경에 따른 손실보전특혜 논란 속에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 구성원 중 2천800여명 이상이 매각 반대 청원서에 서명했고, 지역민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더블스타 매각에 반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매각을 강행한다면 지역경제 파탄과 국내공장 축소·폐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지역민과 연대해 지역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넘어갈 경우 874개 독자기술과 글로벌 특허권 50여건의 중국 유출, 군용 타이어의 납품 차질, 국내공장 단계적 축소·폐쇄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광주국세청, 부가세 전자신고 서비스 개선

광주지방국세청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전자신고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등 납세자들이 많이 조회해야 하는 항목을 사전제공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채움’ 기능 등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에게 내방시기가 분산되도록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해 창구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고전 꼭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철 청장은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 점검차 지난 21일 납세인들이 많은 서광주세무서 현장을 찾아 신고창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창구 방문 납세자 의견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비스 개선에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토지매매

① 광산구 신창동 도로접 344평, 생산녹지,
▶ 평당 350만원, (병원, 프렌차이즈적합)

② 함평,엇다초교주변,창고부지,
1만2천평 ▶ 매매가 상담후 결정

③ 광산구 신창동 자연녹지 500평 평당
▶ 190만원 (식당,공장 적합)

상가매매

① 첨단지구 집합건물 1층 분양면적 150평
전용 121평 ▶매매가 8억 5천 (용5억),
보증금 5천에 월450만

② 첨단2지구(신한은행 사거리) 집합건물
2층 분양면적 100평 전용70평
▶매매가 6억3천

상가 임대

① 광산구 쌍암동 (첨단) 2층 100평 일반
음식점 보증금 2000만 ▶월세 170만

혁신상가매매

① 나주,혁신도시,상가,급매물,다량보유,
투자 적기.

상가 빌딩 매매

①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대지 36평
건물 150평 5층 ▶매매가 4억

②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 상업지역
대지 100평 건물 300평 ▶매매가 24억

구시청 사거리 상업지역

① 지하 105평,보증 5,000만원
▶월 300만원 클럽적합 (유흥허가),
유흥세 없음

② 4층 95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유흥허가) 유흥세
없음

③ 5층 95평 일반음식점 5,000만원
▶월세 250만원

④ 7층 95평 일반음식점 5,000만원
▶월세 350만원

북광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장연화 H.010-3601-1915 / 010-5607-5212

임야 ◆ 삽니다

신속 / 당일처리!

오 천 개 발
H. 010-3605-5000